

재담·줄타기로 풀어낸 전통연희 한마당

국악단체 사이로 초청공연, 내일 남도국악원 마두금·트럼본 더한 전통민요 기반 창작 무대

줄 위를 걷는 인생의 균형과 긴장을 음악과 연희로 풀어낸 무대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펼쳐진다. 전통 줄타기와 재담을 바탕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풀어내는 창작 공연이다.

▶공연단체 사이로



재로 삼아 구성한 창작 무대다. 줄타기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균형의 감각을 음악과 연희로 풀어낸 무대로 특유의

소리를 드러내는 역할도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오봉산타령과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이 펼쳐진다. 재담과 연희자의 몸짓이 어우러지며 실제 줄이 보이지 않더라도 관객의 상상 속에 '줄'을 구현하는 무대 구성이 특징이다. 줄 위를 걷는 듯한 긴장과 해학이 교차하는 공연 구조를 통해 인생의 균형과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을 표현한다.

또한 몽골 전통악기인 마두금과 서양악기 트럼본을 활용한 곡도 선보이며 음악적 색채를 넓힌다. 전통 민요 선율과 다양한 악기의 음색이 어우러지며 공연 전반에 다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한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061-540-4042)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악당에서 사이로 초청공연 '재담 Rope Dancing'을 선보인다.

'사이로'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소속 단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자신들만의 창작 길을 걷겠다는 의미의 '사잇길'이라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다. 이들은 2019년 '만복사 저포기'를 시작으로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새로운 무대 형식을 모색해왔다.

이번 공연은 마지막 광대로 알려진 이동만 명인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김인호의 예능 가운데 재담과 줄타기를 소

해학과 몸짓이 돋보인다.

한국 전통 줄타기는 단순한 기예를 넘어 인간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연 형식으로 전해진다. 줄 위의 위태로운 움직임은 인간사의 덧없음과 불안정한 현실을 비유하며, 광대가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장면은 서민의 고단한 삶을 풍자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했다.

특히 남사당패 공연에서는 줄타기가 마당놀이의 절정 장면으로 등장하며 공동체의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냈고, 양반이나 파계승을 풍자하는 재담을 통해 민중의 억눌린 목

한국연극협회 道지회 오늘 44회 전남연극제 개막

순천시문화회관에서 7개 극단 참가

(사)한국연극협회 전남도지회(전남연극협회·회장 김중성)가 전국 대회에 출전할 지역 대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제44회 전남연극제를 개최한다.

12일 전남연극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극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순천시문화예술회관과 목포 소극장 창고 등에서 '삶이 있는 연극'을 주제로 펼쳐진다.

13일에는 강진극단 청자 '모란이 피기까지 우리는', 순천극단 뭉치들 '만선'을 선보인다.

이어 14일 무안극단 '빨' '바다로 간 소풍', 15일 광양극단 백운무대 '행복한 가족', 20일 여수극단 예술마당 '황금여인숙', 21일 해남극단 미암 '가을이 가도 겨울은 온다' 등이 어진다.

또한 21-22일 목포 소극장 창고에서는 목포극단 선창의 '마술가게' 공연이 열린다.

올해는 도내 7개 지역 극단이 참가해 각기 다른 매력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치열한 경연을 벌인다.

이번 연극제에서 최고상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얻는다.

모든 공연은 만 11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일 현장 선착순 100명에게는 특별 제작된 기념 굿즈가 증정된다. /순천=양홍렬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50강〉 11. 지천태(地天泰) 下

태지대장(泰之大壯 四動)	
지천태	보천대장

태(泰卦) 육사의 효사는 '편편 불부, 이기린, 불계이부(翩翩不富, 以其鄰, 不戒以孚)다. 즉, '날아 오르기 위해 열심히 날개를 치고 부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이웃들(六五 上六과 함께 경계심을 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삼양의 현자의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이다.

사효는 음위에 음효로서 유순정위에서 조구와 상응하면서 군주를 보좌하는 대신이다. 육사는 음부재의 효로서 기세와 재주가 약하니 육오, 상육을 설득해 함께 조구를 발탁하고 삼양의 도움을 청한다. '편편(翩翩)은 새가 날기 위해 열심히 날개를 치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효사의 내용은 태괘의 태(泰)의 삼양의 시기를 지나 비(否)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고, 삼양의 도움을 통해 비의 흉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행간의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효사의 내용이다.

사효는 지천태에서 천지비로 가는 때이다. 육사는 육오의 군(君)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의 위치에 있으나 음위에 음효가 있어 태(泰)의 때를 유지하기에는 힘이 들고 능력이 부족하다(翩翩).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귀에 얽매이지 않고(不富)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해 겸손한 마음으로 육사와 응(應)하는 초효의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이 효사의 진정한 의미이다.

효사에 '불계이부(不戒以孚)는 초효에 있는 능력자를 등용하는 것을 의심이나 경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초효를 발탁하라는 의미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계 삼양의 현인들과 상의해야 한다.

상전에서는 '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은 실(實)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라고 해 '편편 불부 개실실야 불계이부 중심원야(翩翩不富 皆失實也 不戒以孚 中心願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물려오지만 실절적인 알맹이가 없다. 재물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득괘해 태괘 사효(※각주=하리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사를 만나면, 이미 벼슬자리에 있는 자는 물러나 피하라(已仕者退避/이사퇴피). 진취에는 성공이 어렵다. 영모에는 손해를 입는다(進取難成 營謀失利/진취난성영모실리). 시끄러운데 거하면 비방을 받게 되나 의지해 그쳐 않으면 화를 벗는다(居靜有訪 依止則脫禍/거요유방 의지즉탈화/거요시끄러울로). 화공이 온전하면 알고 외진 곳으로 출사하나 노력해서 한가롭지 못하다(化公則仕仕於遠僻 勞碌不暇/화공전 출사사어원벽 노록불가/화공미일 벽, 暇 한가할거를가, 碌 고르지않는명록)을 얻으면 사효부터는 비괘(否卦)의 징후가 나타나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

소극적인 뒷사람과 적극적인 앞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육사는 이를 소통시키기 위해 초효 앞사람을 믿고 뒷사람 육오, 상육을 설득해야 한다.

내 이웃을 경계하지 않아 내가 해침을 받고 하극상이 일어나는 시기이니 겸손하게 물러서는 것이 중요한 시기

다. 새가 날기 위해 열심히 날개를 치지만(翩翩) 날지는 못한다. 힘도 없는 주제에 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보거나 쓸데없는 일에 손을 대는 일이 있으니 겸손하게 물러서는 것이 중요하다.

운이나 지망, 사업 등은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새로 하는 일이나 취직, 전업은 불가하다. 바라는 바가 너무 높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혼인은 목표를 낮춰서 상대를 구해야 하고 잉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 있고 유산의 우려가 있다(變卦 震雷, 大兌의 象).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가솔인이나 분실물은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찾지 힘들다. 병은 육사와 동해 변태장(變大壯)의 상(간(肝)을 다치거나(金剋木) 위경련, 대태(大兌)의 상에서 자궁경관, 히스테리, 신경과민 증세(震)로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

'모인의 공무원 시험 합격 여하'의 '실점'에서 육사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가고 땅의 정기가 위로 올라가 상봉해 안태로운 상이다. 이제 구사를 얻어 안태로운 기운이 쇠운으로 바뀌어 가는 때로 효사에 하늘로 날기 위해 열심히 날갯짓을 치나 날지는 못한다고 해 편편(翩翩)이라 했다. 음위에 음효가 있어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니 더 많은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역시 실패했다.

또 다른 '실점'에 '유방 아래와 갈비뼈 사이에 종기가 돌아 유방암 여부'를 물어 육사를 얻고 점고하기를 "효사에 '편편 불부 이기린(翩翩不富 以其鄰)이라 했으니 아직 암이나 전염병 등이 침범하지 않았다. 단순한 종기 등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그러했다.

태괘 육오의 효사는 '제을귀매, 이지 원길(帝乙歸妹, 以祉元吉)이다. 즉 '제왕이 자신의 딸을 훌륭한 신하에게 시집보내니 복이 있고 크게 길하다'는 의미이다.

오효는 양위에 음효로 정위는 아니나 유중(柔中)의 군주로서 상응하는 구이의 강명(剛明)한 현신을 거느리고 있는 유순한 지존이다. 제을왕은 은(殷)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의 부친이다. 제을왕은 자신의 딸을 유능한 신하(구이)에게 시집보내고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했다는 고사에서 이 효사가 만들어졌다.

육오는 구이와 응해 강중(剛中)의 구이를 신하로 발탁해 세상을 태평성대하게 하고 크게 길하게(以祉元吉)하니 그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딸을 구이의 신하에게 시집보낸 것이다.

태괘(泰卦)의 효괘(상괘 오·사·삼효, 하괘 사·삼·이효)를 보면 뇌택귀매(澤澤歸妹)괘가 있는데 귀매괘는 '늦지않고 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제을왕 다음은 주왕으로 주왕 때 은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태괘의 오효를 얻으면 시집보내고 정기가 가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는 썩 좋은 일이 없다. 결혼도 나보다 낮은 데에서 구해야 한다.

상전에서는 '복록을 얻어 크게 길하다는 것은 중도로써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해 '이지원길(帝乙歸妹)은(以祉元吉 中以行願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시집가고 결혼하는 시기로 복지사업에도 좋다.

서죽을 들어 태괘 오효(※각주=하리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오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주로 벼슬이동이 있고 흑기본일이 있다(往有遷除 或有喜事/주유전제 흑유희사. 선비는 보성의 징조가 있다(則有步維之兆/주유보성지조/繼 두개비 섬, 步維 과거등세). 서운은 남의 발탁을 득하며 혹은 혼인을 맺고 생육해서 백복이 멀리서 모여 든다(往得人譽學 或結姻生育 而百福悠集/주독인대거 흑결인생육 이백복유집/福 들 다. 悠 멀, 격정 할유)를 얻으면, 지극히 좋은 듯해도 태괘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니 운기가 내리막길이다. 원래의 신분이나 과거의 화려한 생활에 사로잡혀 걸을 꾸미거나 쓸데없는 일로 괴로움이 있을 때다.

따라서 쇠운을 만회(挽回)하기 위해 손아랫사람인 유력자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는 등의 정략을 써서 힘을 얻고자 하는 때이다. 사업이나 지망 등은 아랫사람에게 위임하여 만회할 날을 기다려야 하고 신규로 시작하는 일들은 모두 보류해야 한다.

혼인은 정략결혼이 많지만 여자는 자신과의 차이 등은 신경 쓰지 말고 성사(成事)되도록 하는 것이 길하나 남자는 성사되지 않는다. 잉태는 늦어지나 무사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에게 장애가 있어 늦어지고 가솔인은 돌아오기 힘들며 분실물도 찾기 어렵다. 병은 변괘가 수천수(水天需)가 되니 식독, 설사, 피고름 등이 발생하는 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모 사업가의 부부연 여하'를 입서해 육오를 얻은 '실점'에서 점찰(占察)하기를, 태괘는 하늘과 땅이 열려 서로 음양이 교태(交泰)하는 상이다. 오효인 금년에는 효사에 '제을귀매(帝乙歸妹)라 해 결혼하는 운이다. 이들은 오년 전 태괘 초효 때에 만났고, 오효 때에는 결혼에 아주 길해 '이지원길(以祉元吉)이라 했다. 반면에 사업은 태괘가 쇠약해져가고 있고 머지않아 비괘(否卦)를 만나게 되니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고 신규사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사실인 즉, 문점자는 올해 재혼을 했고 사업은 축소하고 전업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은 4.5년의 기간이 지나면 비괘 사효부터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괘 상육의 효사는 '성복우황(復于隍, 貞吉)이다. 즉, '성복이 무너져 도로 물웅덩이가 된다.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 음으로부터 고하는 명이 있다. 바르게 하더라도 어렵다'는 의미이다.

상효는 태괘의 최상위에 있다. 태평성대의 시대가 다가고 물극필반(物極必反), 무평불복(無平不復)의 이치에 따라 비색쇠운(否塞衰運)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천하의 법칙이다. 이제 태의 때가 극해서 난세(亂世)가 되고 성은 무너졌으며(城復于隍), 병사는 힘이 없어지고 군의 위령이 전혀 행해지지 못해(勿用師) 변방으로부터 적이 침입해 왔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는 보고(自巽告命)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바르고 굳게 지키더라도 불가능하다(貞吝).

효사(爻辭)를 상(象)으로 살펴보면 건(乾)의 초석(礎石) 위에 곤토(坤土)를 쌓아 성벽의 상이지만 태(泰)가 극에 이르러 비(否)로 변하고 토벽은 초석의 아래로 붕락(崩落)해 성이 해자 물웅덩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태괘의 상·오·사효와 오·사·삼효로 효괘를 지어보면 지리복이 되니 '돌아간다'는 뜻이 되고 높이 쌓아 있는 것이 옛날의 낮은 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상효에서 성이 무너지고 높은 성과가 넘어졌으니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났고 태괘의 화려한 시대가 마감된 것이다.

상전에서는 '성이 무너져 해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명이 바뀌는 시기이고 어지러움을 만나는 때'라고 해 '성복우황 기명난야(城復于隍 其命亂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태가 상효의 극에 와 있으니 하늘과 땅이 막히는 천지비괘로 넘어가 어렵고 운기가 쇠퇴한다. 집안이나 사업 등이 어렵고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시기로 힘들다.

득괘해 태괘 상육(※각주=하리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상육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귀양감을 만난다(遺謫/조적됨/廣 귀양갈 직, 貶謫어트릴 령). 선비는 부끄럽고 욕됨을 만난다(遺羞辱/조소함). 서운은 파손이 있고 질병으로 수가 어려워우니 오직 근후회(悔)를 면한다(有破損 有疾病 難於壽 惟謹厚免禍/유파손 유질병 난이수 유근후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다. 나라가 망하고 명(命)을 잃기 어렵다. 파산해 아반도 주하거나 옥대골이 무너지는 최악 상황에 직면한 때다. 따라서 지망, 사업, 취업 등은 불가한 시기로 시운(時運)의 전환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하는 시기로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혼인은 성사될 희망이 없고 잉태했다면 무사하나 유산의 우려가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자는 오는 길이 막혀 돌아오기 힘들고 가솔인은 어딘가에 보호, 감금돼 있으며 분실물은 아직 집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병은 두통, 불식(不食), 사지와 허리, 옆구리 통증, 신경쇠약 등이고 중증(重症)으로 위독하다.

'모인의 사업은 여하'를 문점해 태괘 상육을 얻고 점고하기를 '금년에 사업이 망하고 회사가 무너진다'고 했다. 실제로 회사가 부도나자 정리했다. 이를 효사에서 '성복우황(城復于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다른 '실점'에 '모인의 병점'을 입서해 육오를 얻고 점고하기를, '태괘는 땅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상이고, 변괘 역시 산 아래 건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니 5.6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해 역시 그러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역경(매주도,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기양성

